

AIDS news

에이즈 판정받고 건강하게 사는 여인 화제

에이즈 판정을 받고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10일 MBC '지구촌 리포트'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 제니퍼(33)씨는 15년 전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 당시 18살이었던 그녀는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 후회했지만 때는 늦었다.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 그녀는 방송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며 "나와 상관없는 동생애자나 약물중독자들이 걸리는 병인줄 알았지 내가 걸릴 줄은 몰랐다"고 절망적인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의사는 길어야 25살까지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약물 섭취, 음식 조절, 충분한 휴식 등 꾸준한 자기 관리가 비결이었다. 5년 전 결혼한 제니퍼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태어날 아기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1% 미만. 안전한 부부관계로 남편 또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얼마 전 뉴스위크에 실렸다. 제니퍼씨는 잡지에서 임신한 몸을 드러내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니퍼씨의 소원은 곧 태어날 아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의 삶이 수많은 에이즈 환자에게 희망과 가능성이 되고 있다.

(TV리포트 2006.06.10)

"에이즈 기원은 카메룬 침팬지"

에이즈가 아프리카 카메룬 지역 침팬지에서 연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5년 만이다.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 소재 앨라배마대학의 비트라이스 한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26일자에 아프리카 정글 원숭이들의 배설물 1300개 이상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앞서 멸종 위기에 빠진 야생 침팬지를 해치지 않고 침팬지가 갖고 있는 영장류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적 추적, 검사 방법을 개발하는 데만 7년을 투자했다. 한 박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에이즈 바이러스) 볼 수 없었고 (조사할) 방법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나 백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그 동안 인간 이외 영장류가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SIV)로 불리는 고유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야생 침팬지에 감염됐으며 유전 및 지형학적으로 얼마나 다양한지는 규명되지 않아 에이즈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경로를 찾아내는 쉽지 않았다. 한 박사는 이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지의 배설물을 추적, 조사해 어떤 침팬지 집단은 전체의 35%가 감염됐으나 어떤 집단은 전혀 감염되지 않았으며, 감염된 모든 침팬지는 동일 조상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일한 유전적 패턴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이어 유전적 분석을 통해 카메룬 사나가강 근처에 사는 침팬지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유형이 인간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1과 가장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매일경제 2006.05.26)

"청소년의 건전한 성(性)" 정착 위한 콘서트 열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후원으로 EBS특집방송 청소년 콘서트 "아름다운 날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 "틴틴파이브"를 비롯한 대중가수 SG워너비, 버블시스터즈, 씨야, 린 등이 출연하고 방송인 장영란과 가수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MC를 본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층의 에이즈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가수들이 아닌 동료교육시스템의 청안자인 존치탁 하버드대박사와 과학교사 장하나씨, 강지원 변호사 등이 나와 에이즈와 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또래지킴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또래지킴이 상징뱃지"를 달아주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세계일보 2006.05.25)

AIDS 퇴치프로그램, 에이즈약 아바카비어 임시 사용 허용

FDA는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AIDS 퇴치프로그램인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와 관련해 임상연구중인 제네릭 에이즈 약의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 FDA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인도의 아우로빈

이종욱 WHO 총장 별세

이종욱(6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22일 오전(현지시간) 숨졌다.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은 이날 오전 제59차 총회 개막에 앞서 "이 총장이 20일 집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제네바 칸토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졌다"고 밝혔다. 제네바 칸토날병원은 이 총장의 공식 사망시각을 오전 7시43분으로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한국대표단 관계자도 이날 "이 총장의 사망 소식이 한국을 거쳐 대표단에 전해졌다"고 말했다.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특별자문관)는 "이 총장이 병원에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가족을 통해 들었다"며 "조문을 위해 제네바로 곧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세계보건기구 총회 개막에 앞서 회의 준비를 하던 중 20일 집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제네바 칸토날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생긴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에 들어가 이날 오후 6시15분께 끝마쳤다. 세계보건기구 총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강화 방안과 에이즈 퇴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총장의 사망으로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1983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했으며, 2003년 1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에 선출됐다.

〈한겨레 2006.05.23〉

도 파마제약이 생산하는 아바카비어(a-BAK-a-veer)설페이트정의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아바카비어설페이트는 이미 허가를 받은 공인된 에이즈 약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약의 지아겐(Ziagen)정의 첫 번째 제네릭 약이다.

PEPFAR는 부시가 2003년에 공표했던 것으로 미국은 5년 기간에 걸쳐 에이즈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병세계적인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가장 심하게 에이즈가 만연한 나라 중에 15개 지역에 특히 집중해서 250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획은 새로운 에이즈 감염인 700만을 예방하고, 적어도 200만 명의 에이즈에 이미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고, 1000만 명의 에이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즉, 에이즈 고아와 취약아동들을 돌보는 것이다. 아바카비어의 현재의 특허와 독점권이 현재 미국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약물은 PEPFAR plan 하에서 해외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FDA는 밝혔다.

〈쿠키뉴스 2006.05.19〉

17일 신문 수입 절반은 에이즈 퇴치기금

아일랜드 록그룹 U2의 리드싱어인 보노가 영국 유명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일일 편집국장이 됐다. 아프리카의 에이즈(후천

성면역결핍증)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디펜던트는 16일 아프리카 에이즈, 빈곤 문제 관련 기사로 지면의 대부분을 채운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날 신문은 제호부터 '더 레드 인디펜던트'로 바꿨다. 보노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인 '레드(Red)'의 이름을 딴 것이다. 1면에는 보노의 사진과 함께 '오늘 뉴스 없음(No News Today)'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보노는 '레드'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명 기업들과 함께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여왔다. 에이즈 퇴치가 시급한 과제라는 뜻에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레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1면 대부분을 영국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그린 그림으로 채웠다. 허스트는 빨강 바탕에 비둘기, 알약, 주사기, 해골과 함께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 하단에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 때문에 오늘도 65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숨을 거뒀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보노는 '편집국장의 글'에서 "(스타로서의) 허영심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야만 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이즈 때문에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아이들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마을을 상상해 보라"고 덧붙였다. 보노는 "클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

‘킹콩’의 연인 나오미 와츠, ‘유엔 에이즈’ 특별대리인 임명

나오미 와츠(37)가 유엔에이즈의 특별대리인으로 임명됐다. AP통신은 16일 나오미 와츠가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에이즈의 특별대리인으로 임명되었으며 앞으로 유엔에이즈의 '포 에브리원(4 Everyone)' 캠페인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와츠는 유엔에이즈 특별대리인으로 임명되기 전 잠비아를 방문했으며 그 곳에서 에이즈로 인해 초토화된 마을과 학교, 병원을 살펴봤다. 와츠는 잠비아를 방문한 후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나는 내 명성과 지위를 내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리는데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와츠는 앞으로 누구에게나 에이즈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 에브리원'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와츠는 "나는 우리 하나하나가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캠페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와츠 외에도 니콜 키드먼과 안젤리나 졸리가 각각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의 친선대사,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HCR)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2006.05.17)

적인 대량살상무기는 바로 에이즈'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독자들이 내는 신문값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값이 나온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인디펜던트는 이날 신문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에이즈 퇴치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신문은 이 밖에 보노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과 한 대담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보낸 감사 메시지도 실었다.

(중앙일보 2006.05.17)

세계적인 '에이즈 해결사' 로 우뚝

타임 선정 '세계를 변화시킨 100인' 김용 교수

'에이즈 해결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김용(金鏞·46)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8일 뉴욕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화적·사회적 편견을 떨치고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과학적으로 대처해야 에이즈를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4년 2월부터 2년간 WHO(세계보건기구) 에이즈 담당 국장으로 일하면서 30만 명이던 후진국의 에이즈 누적 치료자 수를 130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놓은 공로 등이 인정되어 이날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를 변화시킨 100인' 상(賞)을 받았다. 그는 에이즈를 다스릴 좋은 약이 최근 개발되어 있음을 환기시켰다. "1996년에 3TC, D4T, 네비라핀 등

16가지 약을 세 가지씩 동시에 복용하는 종합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에이즈 환자 수명을 10~15년 정도 연장하게 됐지요. 약값도 처음엔 1만5000달러였으나 특허권 적용을 안 받는 인도 회사들이 복제약을 대량 개발해 이제 연간 14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에이즈 재앙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에이즈 때문에 나라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1990년에 평균 수명이 63세였지만 지금은 40세도 안 됩니다. 같은 기간에 레소토는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35세로 줄었어요. 에이즈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2위의 에이즈 대국인 인도가 큰 문제지요" 에이즈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그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변형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다가 주요 전염 계층인 저소득층이 의료 보호체계와 교육체계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에이즈 치료약 제공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것과 함께 후진국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동료 교수인 폴 파머와 함께 개도국 의료 자선단체인 '보건 동반자(Partners in Health)'를 창설

아이티·페루·러시아·멕시코·과테말라 등에서 에이즈와 결핵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성(性)문화 탓으로 에이즈 예방에 필수적인 콘돔 사용이 저조한 것을 예로 들며 "문화적 전통이 에이즈 퇴치를 어렵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06.05.10〉

英 해리왕자 생모정신 계승 자선재단 창설

영국의 해리 왕자가 생모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생전에 벌였던 자선사업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자선재단을 창설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온라인판이 28일 보도했다.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프리카 레소토의 고아를 돕기 위한 '센테발레 자선재단(www.sentebale.org)'을 창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센테발레'는 레소토에서 사용되는 말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올해로 21살이 된 해리 왕자는 지난 2004년 이튼스쿨을 마치고 샌허스트 사관학교로 진학하기 전 비는 시간을 이용해 레소토를 방문해 현지실태를 둘러보고 돌아왔다. 신문은 "당시 레소토를 처음 방문한 해리 왕자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을 목격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리 왕자는 레소토에서 돌아온 직후인 2004년 하반기 왕실의 이름을 내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이 돈은 해리 왕자가 세운 자선재단의 창설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6.04.28〉

교황 "에이즈 예방위해 콘돔 사용 권장"

콘돔 사용을 반대해 온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콘돔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28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에이즈바이러스 발견 25주년'을 맞아 교황이 부부 중 한명이 에이즈 감염환자일 경우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문가집단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교회는 피임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추기경들은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피임이 목적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 예방이 목적이라면 콘돔 사용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를로 마리아 마티니 추기경은 "피임이 신의 뜻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일지라도 (콘돔 사용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보다 '덜 악마적'이라

고 말했다.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수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380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염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스니아,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등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인 세 명 중 한 명꼴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는 감염된 상태다. 바티칸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가톨릭계 외에도 콘돔 사용이 보편화하지 않은 아프리카 등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006.04.28〉


남아공 "여성 전용 HIV 살균젤 2010년 시판 가능"

여성 생식기 내부에 침투한 에이즈바이러스(HIV)를 죽이는 젤 형태의 새로운 예방약이 빠르면 오는 2010년 시판될 예정이다. 남아공 국립의료연구원(MRC)의 HIV 예방 담당 책임자인 지타 람지는 여성들이 질에 발라 이용할 수 있는 HIV 살균젤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010년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23일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람지는 남아공에서만 1만2천 명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수천명을 상대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균젤은 성관계시 여성 질 내부에 침투한 HIV를 공격해 죽이거나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개발담당자들은 크림, 스펀지, 링 등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젤 형태의 HIV 예방책은 남성들이 콘돔 사용을 꺼리는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에이즈 노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여성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은 성인 에이즈 환자 중 60%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에이즈에 취약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2천500만 명이 에이즈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60%가 여성이다.

〈머니투데이 2006.04.24〉



광주지방성인V61성병소유문
 의료비지원/의료/광주광역시/성인V61성병소유문/성병
 2. 에이즈에 감염되면 매우 중요한데 에이즈에 감염되면
 에이즈에 감염되면 매우 중요한데 에이즈에 감염되면
 에이즈에 감염되면 매우 중요한데 에이즈에 감염되면